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인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동참해주세요

2025년 제 30호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성명서

학생선수를 삼으로 내리친 상주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을 규탄한다!

01

따돌림 피해의 비참함...왕국의 야구 소년

한겨레21 이재훈 기자

02

씨름 ‘삼 폭행’ 농구 ‘주먹질’... 폭력에 멍드는 학교체육

세계비즈니스스포츠월드 김종원 기자

03

경북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재발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스포츠동아 나영조 기자

04

용인축구협회 간부, 공무원 폭행...이상일 시장, “단호하게 조치해야”

서울신문 안승순 기자

05

고갈 위기의 경기도 문화체육 관련 기금

경인일보 이영선·이시은 기자

학생선수를 삼으로 내리친 상주시 중학교 씨름부 감독을 규탄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폭력을 방치하고 묵인한 학교와 교육청에게 책임을 묻고
안전한 학교운동부 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라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스포츠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6월 상주시 모 중학교 씨름부 감독이 선수 A군의 머리를 삼 날로 내려쳐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본 사건이 두 달 동안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알려진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온 A군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한 것을 아버지가 극적으로 발견해 구조하면서 드러나게 되었다.

학교 측은 “폭행 사실과 병원 치료 여부를 전혀 몰랐다”며 해명했고 학부모가 교육청 산하 Wee센터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교육청에서도 본 사안을 경미한 사안으로 취급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 지도자 지인은 “재능은 있었지만 훈련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며 피해 학생선수에 대해 언급했다. 이는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회피일 뿐 아니라 2차 가해이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들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문제다. 오히려 지도자의 역량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학교나 교육청이 학교운동부 폭력 사건을 경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사태를 방치, 묵인하는 관례가 여전한 것은 정말 충격적이다.

지난 3월 대회 기간 중 숙소에서 학생선수에게 폭력 및 성폭력을 행사한 태권도 코치도 피해 선수의 태도를 문제 삼았으며 지난 해 발생한 손축구아카데미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피해아동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또한 3월에 발생했던 태권도 코치의 학생선수 폭력 사건에서도 학교의 늑장 대처가 있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가해 지도자가 피해 학생선수 학부모에게 거짓으로 사건을 위장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방치, 묵인하는 2개월여 동안 피해 학생선수는 폭력의 고통에 시달리다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를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2020년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이 체육계에 큰 충격과 파장을 몰고 왔지만 반성 없이 바뀌지 않은 체육계는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폭력 등 인권침해의 위험에서 안전하지 않은 학교운동부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 모두에게 기피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은 그 위험을 더 증폭시킨다. 학생선수를 보호해야 할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상주시 모 중학교 씨름부 지도자의 폭력사건에 대해서는 가해지도자의 처벌 뿐 아니라 본 사건을 방치하고 묵인한 학교와 교육청까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스포츠 재능과 꿈을 가진 학생선수들이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다치고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시스템에서 안전한 학교운동부가 존재하고 다양한 학생선수들이 양성된다.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구축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본 사안을 다루어야 하는 이유다.

2025년 8월 12일

사단법인 스포츠인권연구소, 문화연대, 체육시민연대

따돌림 피해의 비참함...왕국의 야구 소년

한겨레21 이재훈 기자(nang@hani.co.kr)

2025.08.18. 오전 11:06

사진=2025년 8월5일 교내 야구장에서 경기도 평택 청담고와 연습경기를 하고 있는 충남 천안 북일고(장필수 기자 feel@hani.co.kr)

폭력은 피해자를 여러 단계에 걸쳐 비참하게 만든다. 물리적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을 당할 때 피해자는 우선 육체적 아픔과 정신적 고립으로 인해 비참해진다. 그다음에는 가해자가 자신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더욱 비참해진다. 다음 단계는 자책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나에게 왜 이렇게 강렬한 적의를 보이는 걸까’ 생각하며 자신의 외모나 차림새, 말투와 행태 등에서 원인을 찾는다. 내가 맞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라도 알고 싶기 때문이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심지어 자신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최악은 아직 남아 있다. 피해자는 끝내 가해자가 자신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그래도 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한다는 사실, 그리고 가해자가 그냥 그래도 되는 배경에 자신이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서열과 계급구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때 비참함은 무력감과 함께 극에 달한다.

그는 “애들 사이에서 왕”으로 불렸다. “왕”은 충남 천안 북일고 야구팀의 ‘에이스’다. 북일고에서 가장 뛰어난 실력을 지닌 투수라는 애기다. 심지어 같은 나이대 한국 최고 투수로 꼽히기도 한다.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전국구 에이스의 폭력은 복종을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무람없이 심부름을 시켰다. 그다음에는 수치심을 안겼다. 샤워하는 알몸을 촬영한 것이다. 피해자가 어쩔사리 그 영상을 삭제하자 이번에는 욕설이 시작됐다.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동원해 집단따돌림을 하게 했다.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에이스의 폭력을 고발했던 후배 두 명이 또 다른 욕설과 집단따돌림의 피해자가 됐다. 추가 피해자 중 한 명은 야구를 그만두고 학교를 옮겼고, 다른 한 명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이번호 표지이야기)

01

에이스의 폭력 가해가 가능했던 배경엔 스포츠에 만연한 실력 지상주의가 있다. 특히 구기 종목에선 에이스와 같이 실력이 뛰어난 선수의 팀 내 위상을 근거로 자연스레 가해자가 그냥 그래도 되는, 피해자는 당장 어떻게 할 수 없는 서열과 계급구조가 형성된다.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프로팀의 지명을 받아 학교 이름을 알리는 선수는 소수에 불과하다.(야구는 1년에 110명이 프로팀에 드래프트된다.) 이런 구조에서 “이른바 ‘잘하는’ 선수의 득을 보는 학교 관리자도, 지도자도, 선수도 그리고 학부모까지 동조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를 만들어낸다”.(김현수 체육시민연대 집행위원장)

학교와 교육기관은 야구팀 선수들의 실력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특히 북일고에서 야구부원은 담임교사와 마주칠 일도, 학기 초 상담도 하지 않는다. 공부나 학교생활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야구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거다. 이런 환경에서 감독과 코치 등은 에이스의 폭력을 “사소한 말다툼”으로 여겼고, 야구부장은 “훈계하고 타이르는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말았다.

“왕”이 비단 천안 북일고 에이스뿐일까. 한국의 학원 스포츠는 물론이거니와 사회 전체가 온통 능력주의에 기반한 서열과 계급구조를 당연시하는 한 “왕”은 어디에든 존재할 수 있다. “왕”들의 전횡 뒤에서 자책하며 자신을 버리는 수많은 피해자를 짓밟으면서 말이다.

씨름 ‘삽 폭행’ 농구 ‘주먹질’... 폭력에 멍드는 학교체육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김종원 기자(johncorners@sportsworldi.com)

2025-08-18 05:46:08

사진=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 사진=마이크로소프트 Bing Image Creator(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삽으로 머리를 내리쳤다. 주먹으로 상대 얼굴을 가격했다.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충격적인 일들이 한국 체육, 그것도 학교 체육 현장에서 발생했다. 체육계 폭력의 고리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며 사회 전체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학교 체육 현장에서 폭력 사건이 잇달아 터졌다. 지난 15일 경북경찰청·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코치 A씨를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코치 A씨가 훈련 중 학생선수의 머리를 삽으로 내리쳤다.

피해 학생은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상처 부위를 봉합해야 했다. 피해 학생은 충격에 지난달 28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가족에게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 충격적인 건 두 달 넘게 이 사건이 은폐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대한씨름협회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해 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고, 씨름계의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교육청 또한 도내 364개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4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2일에는 강원 양구서 열린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중등부 경기에서는 리바운드 경합 도중 B선수가 상대 선수를 주먹으로 가격했다. 피해 학생은 그대로 쓰러졌고,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눈 위를 5바늘 꿰맨 가운데 안와골절 진단도 받았다. 중고농구연맹은 이튿날인 지난 13일 징계위원회 논의를 거쳐 B선수에게 출전 정지 3년6개월, 해당 중학교 코치에게는 자격 정지 2년 징계를 내렸다.

끝이 아니다. 지난 4월 대구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코치가 과거 학생 선수를 상대로 가위를 입안에 넣고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대한빙상연맹은 “해당 사건을 확인 중”이라고 밝힌 뒤 아직까지 관련 사안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다.

지난해에는 제주에서 태권도 코치가 학생 선수들에게 겨루기 시합을 시킨 뒤 패한 선수에게 몽둥이로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해당 코치는 특수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동부경찰서에 입건된 바 있다.

사후약방문이다. 사건이 일어나면 징계 및 후속 대책이 나오지만, 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종목을 불문하고 학교운동부 곳곳에서 폭력이 이어지자 체육계와 교육당국도 대응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강경한 자세다. “최근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에서 발생한 ‘삽 폭행 사건’을 비롯, 태권도·피겨 종목 등에서 연이어 드러난 미성년자 대상 폭행과 장기간 가혹행위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 규정과 무관용 원칙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설명이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성인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폭행·성범죄, 그리고 선수 간 폭력은 결코 ‘훈련’이나 ‘지도의 일부’로 포장될 수 없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퇴출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립하고, 학생선수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전했다.

시험대에 오른 체육계다. 개인의 일탈로만 보기엔 뿌리가 깊다. 학교체육 폭력은 오랜 시간 자주 반복돼 왔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은 쏟아졌지만 실효성엔 늘 의문부호가 따라붙었다. 이번에도 제도적 장치 마련과 무관용 원칙 등이 앞다퉈 선언되고 있다. ‘학생선수 보호’가 더 이상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경북교육청, 학교운동부 폭력 재발 방지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스포츠동아 나영조 기자(localdk@donga.com)

25.08.15. 오전 9:13

사진=경상북도교육청 전경(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최근 발생한 학교운동부 지도자 폭력 사건을 계기로 학생선수 보호와 안전한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도내 전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긴급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14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도내 364개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를 온라인 비공개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 피해나 침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지속적 폭력이나 조직적 은폐가 의심될 경우 특별조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피해 학생 심리상담·치료 지원 △지도자 폭력 예방 교육 정례화 △훈련 전·후 인권·안전 교육 병행 △매월 ‘사제동행 대화의 시간’ 운영 등을 추진한다.

특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중대 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제도를 적용, 단 한 번의 위반만으로도 지도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 형사 처분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원칙으로 하며, 교육지원청 단위로 학교운동부 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 접수부터 사안 처리까지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학생선수들이 두려움 없이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축구협회 간부, 공무원 폭행...이상일 시장, “단호하게 조치해야”

서울신문 안승순 기자(anssk@seoul.co.kr)

2025.08.15. 오후 2:03

사진=이상일 용인특례시장(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최근 용인시 축구협회 소속 전무이사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시 공무원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15일 “폭력 행사는 용납되기 어려운 일로 당사자는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고, 축구협회도 이 문제를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되며 단호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어떤 사안을 두고 생각이 달라 언쟁을 할 수는 있겠지만 뜻대로 안 된다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상식과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매우 잘못된 행위”라며 “가해 당사자와 협회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제대로 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는 그동안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면서 용인시 축구협회와 협력을 해 왔는데 이번 일로 시와 협회의 신뢰가 훼손될까 우려한다”며 “협회가 책임감 있는 선제적인 조치로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축구협회 전무이사의 폭행 사건은 이달 초 축구장 대여 문제와 관련해 시 관계자들과 협회 측 인사들이 식사하며 논의하던 중 발생했다. 피해 공무원은 협회 전무이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갈 위기의 경기도 문화체육 관련 기금

경인일보 이영선·이시은 기자(zero@kyeongin.com)

2025-08-17 20:28

사진=지난해 광주시 팀업캠퍼스 야구장에서 진행된 '2024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경기 모습(경인일보DB)

경기도 문화예술·체육 지원을 위한 재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과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 등을 안정적인 수익 구조나 명확한 기준 없이 사용하다보면 수년 내 문화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축소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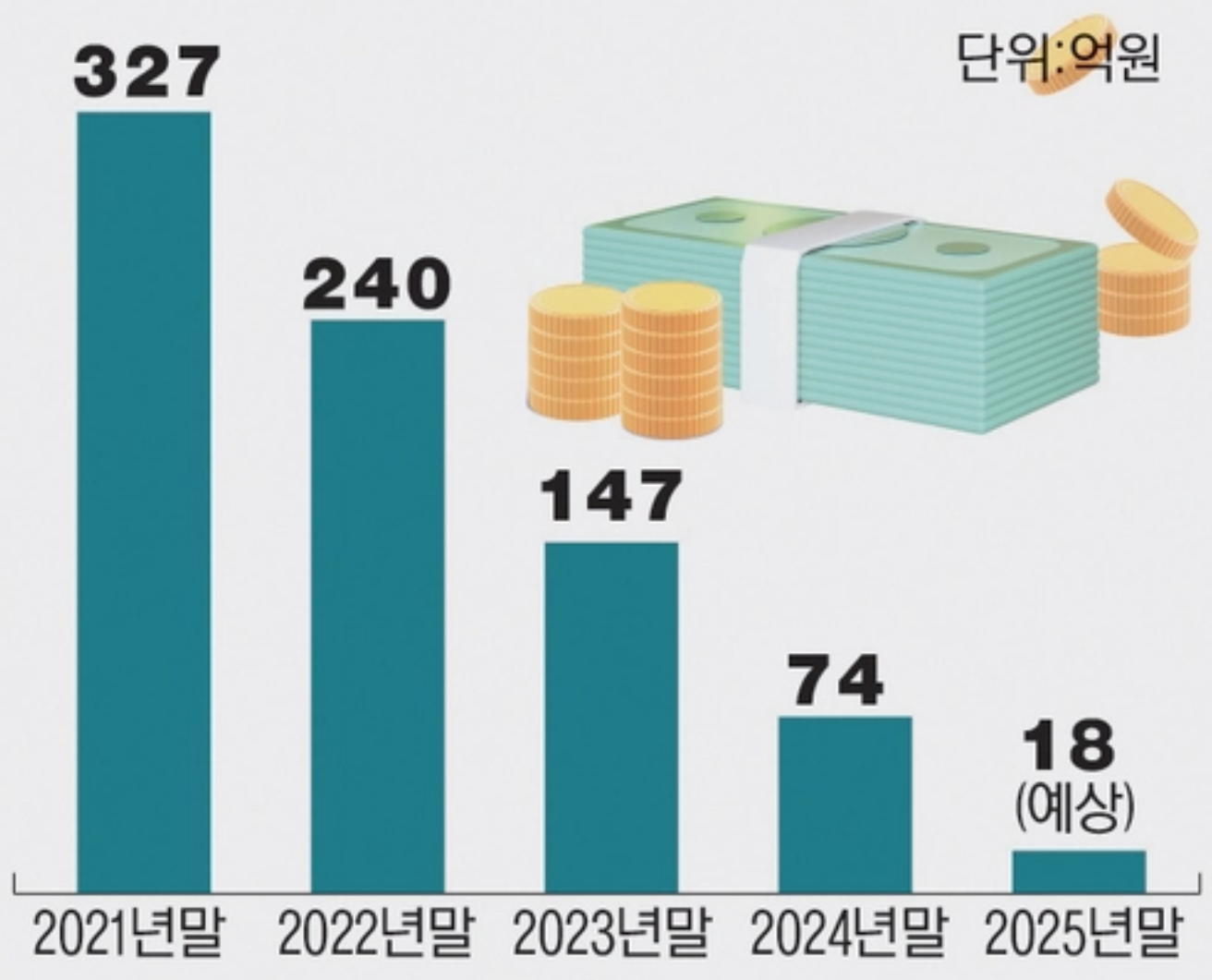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은 경기도민의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 신설했다. 경기도체육회는 기금 이자 수입을 통해 체육인들을 위한 장학금 명목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육진흥기금을 특정 종목인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와 시민프로축구단에 대한 재정적인 뒷받침으로 운영해 다른 종목으로부터 논란을 키웠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체육진흥기금이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체육진흥기금은 최근 4년 사이에 300억원 가량 줄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 말 327억원에서 2022년 240억원, 2023년 147억원, 2024년 74억원으로 집계됐고, 올해 말에는 약 18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체육진흥기금의 자체 수입원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체육진흥기금의 이자 수입도 충분하지 않다. 올해 도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약 99억원을 지출할 계획인데, 수입은 약 46억원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기문화재단 기본재산과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기본재산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자산이다. 이런 이유로 기본 재산은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사용돼왔다.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재단이 도내 예술인 1천명에게 각 200만원을 지원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기도 체육진흥기금 연도별 조성액 추이



그래픽=(경인일보)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올해 초 재단에 기본 재산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논란이 촉발됐다. 경기문화재단은 약 1천200억원 규모의 기본 재산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수년 내 고갈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논의를 바탕으로 운용계획을 비롯한 가이드라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기도는 기본 재산 취지에 따라 도의 요청에 의해 기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 문화예술계 관계자는 “도가 필요에 따라 재단의 기본 재산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관련 논의를 선행하지 않은 채 사용하다보면 2~3년 안에 고갈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보인다”면서 “기본 재산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진 시점”이라고 밝혔다.



체육 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여러분의 후원이 건강한 스포츠 사회를 만듭니다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인권과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문화를 함께 만들어갑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후원: 국민은행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